

제6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장려상 수상작

이행 초기 정치·경제적 조건이
경제 개혁 속도에 미치는 영향

- 1989~1994년 체코와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룡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 이 글은 2007년 1학기 '이행기 경제와 경제체제론'(담당교수: 김병연) 강좌의 리포트이다.

차 례

1. 머리말
2. 기존 문헌 연구
3. 체코의 급진적 개혁과 헝가리의 점진적 개혁
 - 3.1. EBRD, 이행 지표(Transition Indicator)
 - 3.2. de Melo, Denizer, Gelb(1996)의 자유화 지표
(Liberalization Index, LI)
4. 체코와 헝가리의 경제 지표 비교
 - 4.1. GDP
 - 4.2. 노동생산성
 - 4.3. 고용 및 실업
 - 4.4. 재정수지
 - 4.5. 소결
5. 체코·헝가리 개혁의 정치적 제약
 - 5.1. 개혁 전략의 정치적 제약
 - 5.2. 체코·헝가리의 개혁 초기 경제적 상황
 - 5.3. 체코·헝가리의 개혁 초기 정치적 상황
 - 5.4. 소결
6.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어느 사회에서나 개혁은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 후의 장밋빛 결과뿐만 아니라 개혁 과정상의 비용과 편익이 철저히 고려되어야 함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때, 개혁 과정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의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즉 가능한 많은 개혁 정책을 단시간 내에 시행하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느냐, 개혁 정책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6).

이러한 개혁의 속도에 대한 문제는 특히 이행기 국가들(transition countries)의 경제 개혁 과정에 있어 두드러진다.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각 국가들의 경제 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그 성과가 가시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이 앞다투어 경제 개혁에 착수했던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각기 다른 속도의 경제 개혁을 추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경제 개혁의 속도가 각 국가의 경제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며, 경제 개혁의 속도를 잘 선택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급진적인 개혁과 점진적인 개혁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이행기 국가에 있어 더 우월한 전략인지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확실히 우월한 전략이라면, 미래의 이행기 국가에 대한 이행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경제 개혁의 속도가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그 외의 다른 요인을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해보고자 이 보고서에서는 체코(Czech Republic)와 헝가리(Hungary), 두 이행기 국가를 모델로 삼아 이행기 국가의 경제 개혁에 있어 개혁 속도의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체코와 헝가리는 이행 초기의 개혁 속도와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여겨지지만,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두

국가 모두 이행에 성공한 국가로 손꼽힌다. 그 때문에 두 국가의 이행 경험은 향후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보고서에서도 두 국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아울러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한정 짓도록 하겠다. 2006년 현재 체코의 1인당 GDP는 21,203달러, 헝가리의 1인당 GDP는 18,100달러로¹⁾ 두 국가 모두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체코는 1995년 12월 21일, 헝가리는 1996년 5월 7일에 OECD에 가입하는²⁾ 등 다른 어떤 이행기 국가들보다도 앞서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적 발전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최소한 1995년 이후로는 두 국가 모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므로(실제로 1995년~2005년 체코와 헝가리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각각 2.9%, 3.9%³⁾이다.), 이 시기의 경제 지표를 토대로 경제 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헝가리의 경제 개혁을 신경제메커니즘(NEM)부터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체코와의 비교를 위해 1990년을 전후로 한 경제 개혁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더군다나 1980년 이전의 통계자료는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어 분석에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으로 분석을 한정함으로써 1990년대 경제 개혁의 초기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이행기 국가들의 경제 개혁 속도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체코와 헝가리의 경제 개혁 속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지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 두 국가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으며, 5장에서는 더 나아가 개혁 전략 선택에 있어서의 정치적 제약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개혁 전략의 선택 과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EBRD, Country Factsheet (<http://www.ebrd.com/pubs/factsh/country/czech.pdf>, <http://www.ebrd.com/pubs/factsh/country/hungary.pdf>, 2007년 6월)

2) OECD, OECD Member Countries (http://www.oecd.org/document/58/0,2340,n2649_201185_1889402_1_1_1_1,00.html, 2007년 6월)

3) EBRD,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index.htm>, 2007년 6월)

2. 기존 문헌 연구

개혁의 속도가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인 모형으로나 실증적인 분석으로나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은 체코와 헝가리의 경제 개혁과 그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므로 이 장에서도 역시 실증적인 연구 위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다음 6개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구소련·동유럽의 이행기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놓고, 독립변수로는 ‘개혁 속도의 지표’와 몇 개의 다른 요인을 택하여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개혁 속도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개혁 속도의 대리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개혁 속도의 지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약간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를 각 연구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존 문헌들이 사용한 개혁 속도의 지표, 표본 국가, 표본 기간

	개혁 속도의 지표	표본 국가	표본 기간
① de Melo, Denizer, Gelb (1996)	CLI ⁴⁾	28개국	1989~1995
② Åslund, Boone, Johnson, Fischer, Ickes (1996)	CLI	24개국	1989~1995
③ Fischer, Sahay, Vegh (1996)	CLI	25개국	1992~1994
④ Sachs, Woo (1997)	EBRD ⁵⁾	25개국	1989~1995
⑤ Heybey, Murrell (1997)	CLI	26개국	밝히지 않음
⑥ Krueger, Ciolko (1998)	CLI	21개국	1989~1995

※ 이하 모든 표와 그림은 자료 출처에서 원자료만 획득한 뒤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각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각 연구마다 개혁 속도 변수 외에도 인플레이션, 지역 더미변수 등의

4) CLI (Cumulated Liberalization Index), de Melo, Denizer, Gelb (1996), 본 보고서의 3.2 참조.

5) EBRD, 이행 지표(Transition Indicator), 본 보고서의 3.1 참조.

여러 독립변수를 함께 넣어 회귀분석하였지만, 여기에서는 개혁 속도의 영향만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표 2> 기존 문헌들의 회귀분석 결과 요약

	회귀계수	t-value	adjusted - R ²
① de Melo, Denizer, Gelb(1996)	2.6	4.7	0.65
② Åslund, Boone, Johnson, Fischer, Ickes(1996)	0.13/0.00	4.33/0.00	0.46/0.77
③ Fischer, Sahay, Vegh(1996)	7.42	3.54	0.72
④ Sachs, Woo(1997)	0.007	3.43	0.40
⑤ Heybey, Murrell(1997)	12.79	0.36	0.63
⑥ Krueger, Ciolko(1998)	-1.78/5.02	-0.44/1.15	0.70/0.72

<표 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행기 국가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대체로 개혁 속도가 빠를수록 이행 직후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연구에 따라서 개혁 속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회귀계수)은 큰 차이를 보였다.⁶⁾

3. 체코의 급진적 개혁과 헝가리의 점진적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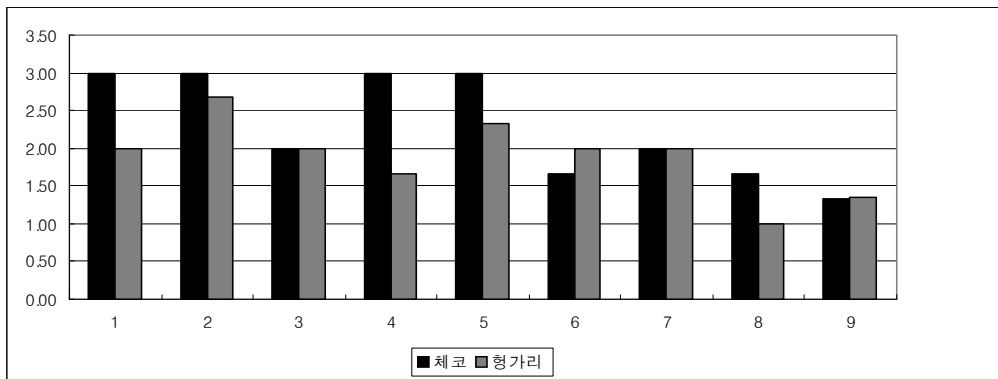
다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체코와 헝가리로 돌아가 보자. 두 나라의 자본주의로의 경제 개혁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나 또는 점진적이었나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혁 속도의 지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어느 한 지표가 실제 이행기 국가들의 경제 개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를 이용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6) 각 연구마다 개혁 속도의 지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어 단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위를 일치시킨다 해도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지표에 대한 신뢰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 보고서에서 이용한 개혁 속도의 지표는, 2장의 문헌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EBRD의 ‘이행 지표(Transition Indicator)’와 de Melo, Denizer, Gelb (1996)의 ‘자유화 지표(Liberalization Index, LI)’이다.

3.1. EBRD, 이행 지표(Transition Indicator)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이행 지표(Transition Indicator)는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에서 그 지표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사유화, 기업 구조조정, 가격 자유화 등의 항목에 1점부터 최대 4.33점까지 부여된다. 각 항목의 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BRD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



자료 : EBRD

- | | | | | | | | | |
|------------|------------|------------|-----------|--------------|----------|--------------------|---------------------|----------------|
| 1. 대규모 사유화 | 2. 소규모 사유화 | 3. 기업 구조조정 | 4. 가격 자유화 | 5. 무역&환율 시스템 | 6. 경쟁 정책 | 7. 은행 개혁 & 이자율 자유화 | 8. 주식시장 & 비은행 금융 기관 | 9. 전반적인 인프라 개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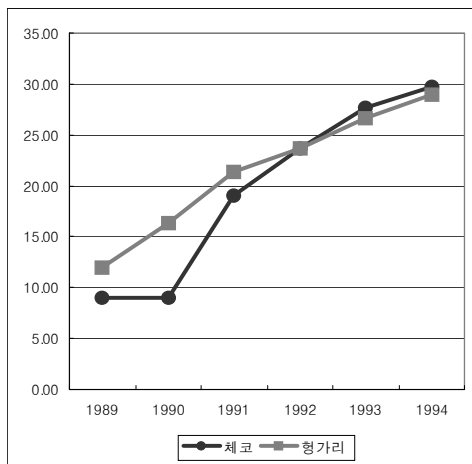
<그림 1> 체코·헝가리의 이행 지표 (1994년 지표 - 1989년 지표)

기본적으로 이행 지표는 각 연도의 개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개혁 속도를 보기 위해 ‘1994년 지표와 1989년 지표의 차’를 구

7) EBRD, Transition indicator (<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timeth.htm>, 200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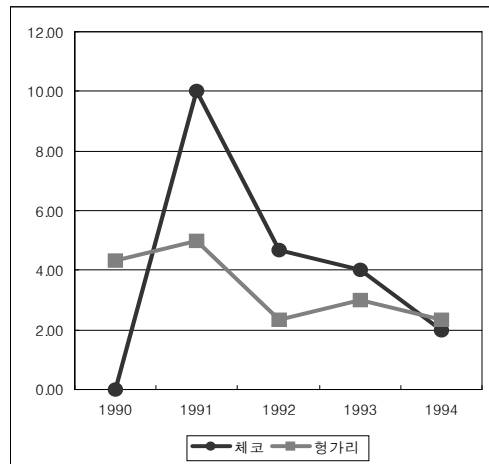
하였다. 두 국가 모두 1994년에는 다른 어떤 이행기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개혁을 진전시켰으나, <그림 1>에서 보듯이 1989년부터 5년간의 개혁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코가 헝가리보다 1989년과 1994년의 지표의 차가 크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체코가 상대적으로 급진적 개혁을, 헝가리가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 속도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도 확인해보고자, 모든 항목의 지표를 합하여 구하면 <그림 2>와 같고, 이를 다시 연도별로 차이를 구하면 <그림 3>과 같다.



자료 : EBRD

<그림 2> 이행 지표의 합



자료 : EB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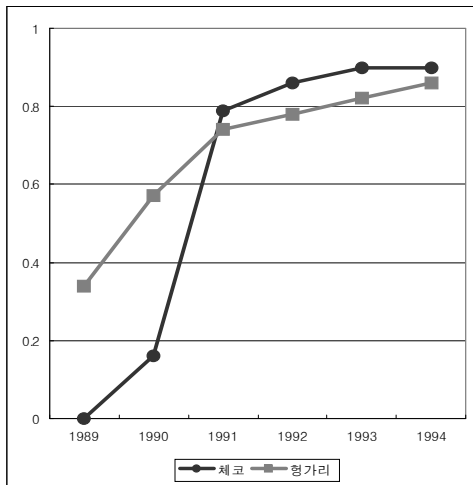
<그림 3> 이행 지표의 연도별 차이

역시 체코가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개혁 초기인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두드러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3.2. de Melo, Denizer, Gelb (1996)의 자유화 지표(Liberalization Index, 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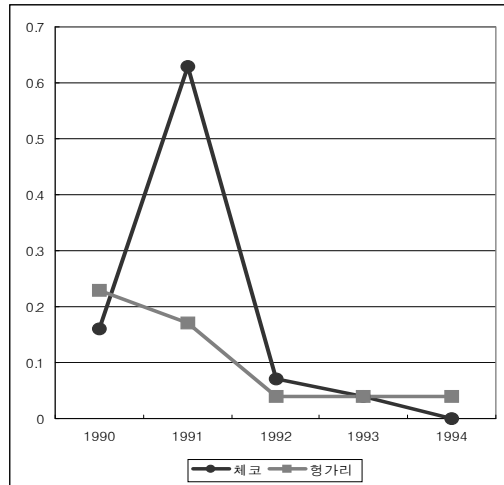
de Melo, Denizer, Gelb는 여러 이행기 국가들의 이행 패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지표를 구축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각 국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들의 자유화 순위를 매긴 뒤, 세계은행과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행기

국가들의 상대적인 순위를 검토하고, EBRD Transition Report의 이행 지표에 기반하여 약간의 조정을 거쳐 이 지표를 구하였다.⁸⁾ 이런 과정을 통해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외부 시장(external market), 정부 부문(private sector entry)을 각각 반영하여 자유화(Liberalization)의 정도를 0부터 1 사이의 가중치로 나타내는 자유화 지표(Liberalization Index, LI)를 구한다.⁹⁾ 각 연도의 자유화 지표를 가중합하면, 기존 문헌 연구에서 개혁 속도의 지표로 언급되었던 누적 자유화 지표(Cumulative Liberalization Index, CLI)가 구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화 지표만을 이용하였다.



자료 : de Melo, Denizer, Gelb (1996)

<그림 4> 자유화 지표



자료 : de Melo, Denizer, Gelb (1996)

<그림 5> 자유화 지표의 연도별 차이

EBRD의 이행 지표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LI를 통해서도 체코가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헝가리가 점진적인 개혁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체코와 헝가리의 경제 지표 비교

8) de Melo, Denizer, Gelb (1996), p. 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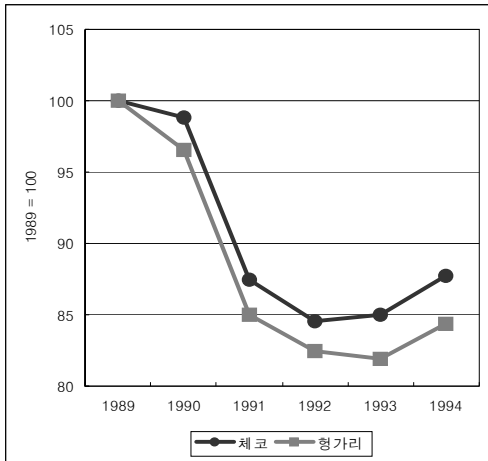
9) de Melo, Denizer, Gelb (1996), pp. 6~7 참조.

앞 장에서 체코와 헝가리의 경제 개혁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체코와 헝가리의 실제 경제 지표들을 비교함으로써 체코의 급진적 경제 개혁과 헝가리의 점진적 경제 개혁이 경제 성과의 차이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보다 많은 경제 지표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체코와 헝가리간에 특별히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및 실업, 재정수지 등 4개 지표의 비교를 통해 두 국가의 개혁 이후 경제 성과의 차이를 보겠다.

4.1.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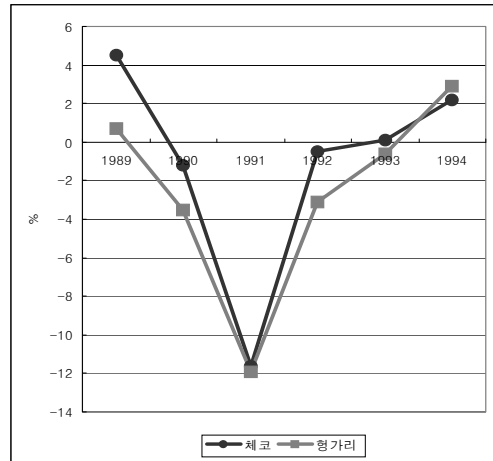
동유럽 및 구소련의 이행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이행 초기 생산 저하(output decline)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초기의 생산 저하를 회복해가며 U자 모양의 곡선의 패턴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이행기의 생산 저하는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것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것이었다(Blanchard, 1996). 하지만, 초기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생산 저하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행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체코와 헝가리는 다른 이행기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제 개혁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이 작은 편이었고, 회복 또한 빠른 편이었지만, 최소한 경제 개혁 직후 5년 간은 큰 폭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GDP 수준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통해 확인하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체코와 헝가리 두 국가 모두, 여타 이행기 국가와 마찬가지로 GDP 수준이 U자 모양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개혁에 착수한 직후인 1990~1991년의 생산 저하 폭이 특히 심각하였다. 그러나 체코는 1992년, 헝가리는 1993년부터는 GDP 수준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두 국가의 GDP와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헝가리가 체코보다 좀 더 큰 폭의 생산 저하를 경험하였고, 생산의 회복 과정에 있어서도 헝가리가 체코보다 약간 늦기는 하였지만 회복세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자료 : IMF

<그림 6> GDP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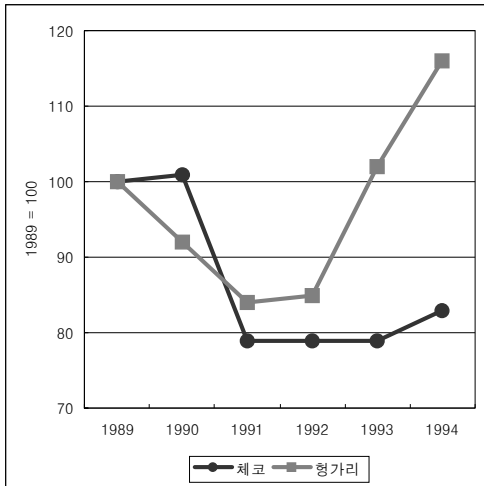
자료 : UN

<그림 7> 경제성장률

한편 이러한 이행기 국가들의 생산 저하는 단지 통계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새로이 생겨난 사유기업들의 생산이 공식 GDP 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사회주의 시절 생산을 부풀려서 보고하던 국유기업들이 더 이상 과다 보고할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Berg, Sachs, 1992, Berg, 1993). 이러한 통계적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연구에서는, 실제 생산에 대한 전기 소비량의 탄력성이 1에 가깝다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 소비량의 변화를 경제 활동의 대리변수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전기 소비량의 감소가 공식 GDP의 감소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체코와 헝가리를 포함하는 중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와 공식 GDP의 변화가 거의 일치한다(Blanchard, 1997).

4.2. 노동생산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생산 저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행기 국가들은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소유권, 기업 지배구조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이를 실제로 확인해보기 위해, 이행 전인 1989년을 기준으로 하여 체코와 헝가리의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자료 : World Bank (1996)

<그림 8>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이 1991년에 일제히 떨어졌다.¹⁰⁾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헝가리의 경우 GDP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4년까지도 1989년의 84% 수준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했지만, 1994년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1989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산과 노동생산성 회복의 불일치 현상은 다음 절에서 비교할 실업률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관하여서는 중국·베트남의 이행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또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개혁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저축을 늘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이행 초기부터 생산 저하 없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¹¹⁾ 특히 생산성이 낮은 농촌 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산업·서비스 부문의 사유기업으로 옮겨가게 한 것이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주된 원동력이었다. 반면 동유럽과 구소련의 이행기 국가들은 비효율적 국유기업에서 효율적 사유기업으로 노동력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생산 저하를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노동생산성 회복 속도가 빨랐던 헝가리가 체코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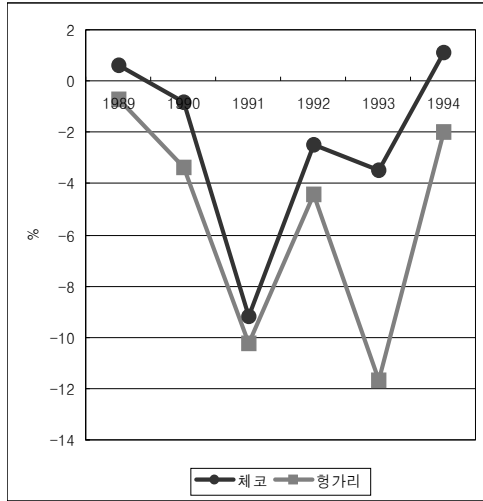
4.3. 고용 및 실업

10) World Bank (1995), p. 98 참조.

11) World Bank (1995), p.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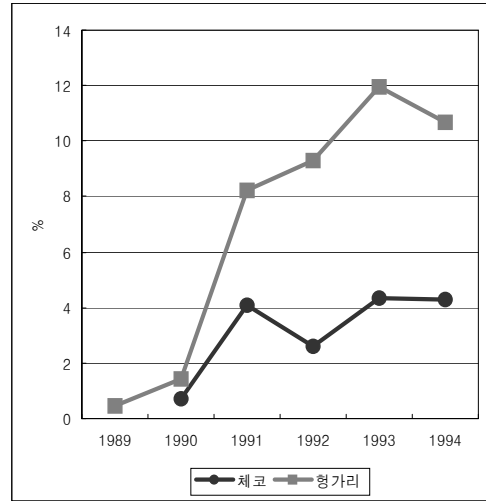
체코와 헝가리 두 국가 모두 개혁 초기에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회복 속도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헝가리는 1991년부터 서서히 노동생산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3년 이후로는 이행 전인 1989년의 수준을 회복했지만, 체코는 1994년까지도 노동생산성이 크게 회복되지 못하였다. 체코의 경우, 전반적인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노동생산성 자료를 보더라도, 연료·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노동생산성에 이어,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 및 실업에 대해 살펴보자. 고용 수준은 개혁 이전인 1989년을 기준으로 하고, 실업은 실업률 통계를 통해 그 변화 추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자료 : EBRD

<그림 9> 고용 수준의 변화율



자료 : EBRD

<그림 10> 실업률

<그림 9>와 <그림 10>을 보면, 두 국가 모두 개혁 직후 고용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그 이후의 추이는 노동생산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헝가리는 낮은 고용 수준과 높은 실업률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에, 체코는 1993년 이후 실업률이 4%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 다른 동유럽과 구소련 이행기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헝가리의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으며,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 체코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심지어 체코와 한국가인 체코 이행 초기를 경험하였던 슬로바키아조차도 다른 동유럽·구소련 국가와 마찬가지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실업률을 경험했다.¹²⁾

이러한 체코의 예외적으로 낮은 실업률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많이 있어왔다. 먼저,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정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 수준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2) World Bank (1995), p. 91 참조.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체코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 측면도 있다.¹³⁾ 한편 체코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낮은 실업률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행 초기 2년여 동안,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노동 축장(labor hoarding)을 하였고,¹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실업인 상태를 거치지 않고 이직하였으며¹⁵⁾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인해¹⁶⁾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이행기 국가와는 달리,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자본주의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이행 초기에 많은 실업 노동력이 외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독일·오스트리아에서 취업한 체코인의 수는 1990~199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¹⁷⁾

한편, 체코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 헝가리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이유를 검토해보자. 이행기의 개혁은 낡은 기업에서 새 기업으로의 재할당(reallocation)과 기존 국유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과정을 수반한다. 재할당 과정에 따라 이행 초기에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Blanchard, 1997).

4.4. 재정수지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 연성예산제약(軟性豫算制約, soft budget constraints)과 소매가격보조금(retail price subsidies) 등은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큰 폭의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이행기에 경제 개혁을 통해 경성예산제약(硬性豫算制約, hard budget constraints)으로 전환하고 소매가격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재정수지를 맞추려는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체코와 헝가리의 재정수지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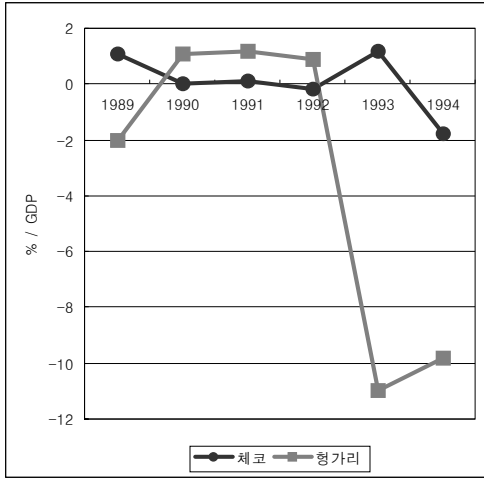
13) Blanchard (1997), p. 11 참조.

14) World Bank (1995), p. 98 참조.

15) World Bank (1995), pp. 131~132 참조.

16) World Bank (1995), p. 126, OECD (1996), p. 56 참조.

17) World Bank (1995), p. 132 참조.



자료 : IMF

<그림 11> GDP 대비 재정수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¹⁸⁾

헝가리가 개혁 직후에 흑자 재정을 유지하다가 1993년부터 극심한 재정 적자 상태에 빠지는 반면에, 체코는 줄곧 재정수지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행기 경제 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에는 국유기업이 이행 초기에 바로 무너지지 않고 1993년 이후부터 서서히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급감하지 않아 비교적

4.5. 소결

이상 GDP, 노동생산성, 고용 및 실업, 재정수지 등의 경제지표를 통해 체코의 급진적 경제개혁과 헝가리의 점진적 경제개혁의 성과를 비교해보았다. 경제 개혁의 성과를 단지 수치상으로 드러난 통계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개혁 직후 5년 동안 두 국가가 주요 지표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였던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되짚어 나가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GDP의 경우에는 U자 모양의 패턴을 따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 노동생산성은 헝가리가 더 빠른 회복·성장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체코가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는 노동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았던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수지의 경우 체코가 헝가리보다 더욱 건전하였다.

이처럼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록 두 국가에 한정된 비교이기는 하지만, 경제 개혁의 속도가 두 국가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초래했다는 조심스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장에서 본 것처럼, 두 국가는 이행 초기 경제 개혁의 속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가 일정 정도 경제 성과의 차이에 기여했을

18) Blanchard (1997), pp. 125~126 참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장에서 기존 문헌 연구를 비교하면서 보았듯이, 개혁 속도가 얼마나 경제 성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다. 특히 체코의 급진적 경제 개혁과 헝가리의 점진적 경제 개혁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 전략이었는데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5. 체코·헝가리 개혁의 정치적 제약

개혁 이후의 경제 성과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급진적 경제개혁과 점진적 경제개혁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 전략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개혁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즉 체코는 왜 급진적 경제 개혁의 전략을, 헝가리는 점진적 경제 개혁의 전략을 택한 것일까? 어느 전략이 더 우월한지 비교할 수 없는 시점에서 단지 우연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먼저 개혁 전략에 있어 정치적 제약의 함의를 되새겨 보고, 이를 바탕으로 체코와 헝가리의 개혁 초기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5.1. 개혁 전략의 정치적 제약

어떤 이행기 국가에 있어 이행을 위한 개혁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우연적 과정이 아니라, 그 국가의 초기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혁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초기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Falcetti, Raiser, Sanfey, 2002). 개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전의 개혁 경험, 둘째로 이행 초기의 거시적 불균형의 정도, 셋째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요인들이 그것이다(Slay, 1994). 이러한 초기 조건의 예를 들자면, 헝가리의 경우 1968년부터 진행된 신경제메커니즘(NEM) 개혁의 경험이 이후 1990년대 개혁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체코의 경우에는 독일·오스트리아 등 서방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소련의 영향을 덜 받은 반면 자본주의 국가의 영향을 더 받은 역사적 경험이 개혁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개혁 이전 체코의 경제적 특징들은 구소련뿐만 아니라 폴란드·헝가리와도 구별되는 것이었다.¹⁹⁾

그리고 개혁을 처음 시도할 때 사전적으로(ex ante) 개인적·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급진적 개혁보다 점진적 개혁을 선호한다는 주장(Fernandez, Rodrik, 1991, Dewatripont, Roland, 1995)이나,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ex post) 국민들이 개혁을 지지하게 만드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점진적 개혁을 선호한다는 주장(Dewatripont, Roland, 1992) 역시 개혁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의 정치적 제약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지니계수를 정치적 제약의 대리변수로 보면, 지니계수가 낮을수록(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개혁의 진척도가 높고,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진다(Kim, Pirtilla, 2003).

5.2. 체코·헝가리의 개혁 초기 경제적 상황

앞 절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체코·헝가리의 개혁 초기 경제적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각 국가가 개혁 전략의 선택에 있어 어떤 정치적 제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개혁 직전 시점인 1988~1989년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외채 규모를 비교하면 <표 3>와 같다.

<표 3> 체코·헝가리의 개혁 초기 경제적 상황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외채규모 (GDP 대비 %)
	1988	1989	1988	1989	1989
체코	2.0	4.5	0.2	1.4	11.4
헝가리	-0.1	0.7	15.8	16.9	65.8

자료 : IMF, EBRD

체코는 대체로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 적은 외채규모를 보인 반면에, 헝가리는 이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고, 상당한 수준의 외채 부담을 안고 있었다. 즉 개혁 당국의 입장에서

19) Mejstrik, Burger (1994), p. 135 참조.

보았을 때, 헝가리의 저조한 경제 상황은 상당한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동시에 빠르게 단행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지지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즉 헝가리는 개혁 초기의 경제적 상황 자체가 급진적 경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힘든 상태였고, 개혁 전략 자체의 순수한 효율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점진적 개혁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코는 급진적 경제 개혁 전략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에 충분한 경제적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그러나 정치인과 국민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2차 경제(second economy)의 규모 또한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2차 경제의 규모를 GDP 통계와 전기 소비량의 차이로부터 유추해보면, 헝가리의 2차 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0~28%로 비교적 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²⁰⁾ 이 역시 앞에서 본 다른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헝가리가 점진적 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5.3. 체코·헝가리의 개혁 초기 정치적 상황

이행 초기 체코와 헝가리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또한 크게 달랐다. 체코에서는 1989년 11월 17일에 ‘얀 팔라치’를 추모하는 집회가 학생들의 반정부·반사회주의 시위로 발전하여 정치적 변혁의 심지에 불을 당겼고, 이후 11월 25일 렛트너 공원에서 대집회가 열려 둠체크(Dubček)가 복권되는 등²¹⁾ 국민들의 소련·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해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 1990년 봄,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하벨(Havel) 정부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뒤엎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도록 요구받았고 그 정치적 지지 또한 높았다.²²⁾

반면 헝가리에서는 ‘평화로운 혁명’을 통해 공산당이 몰락하였고²³⁾ 1990년 봄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헝가리민주주의포럼(Hungary Democratic Forum)은 가격 조정, 무역 자유화 등 점진적 경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지를 얻은 것이다.²⁴⁾

20) Schneider, Enste (2000), p. 80 참조.

21) SBS 프로덕션, 「프라하의 봄 그 후 25년 체코슬로바키아」, 1993 참조.

22) Thomas (1992), p. 287 참조.

23) SBS 프로덕션, 「서구화의 선두주자 헝가리」, 1993 참조.

24) Thomas (1992), p. 284 참조.

5.4. 소결

개혁 직전, 체코와 헝가리는 상당히 다른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곧 개혁 당국에 있어서는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즉 체코는 급진적 경제 개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헝가리는 점진적 경제 개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국가가 다른 경제 개혁 전략을 택한 것은,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각기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 앞서 4장에서는 두 국가의 각종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았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각 국가의 고유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의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체코와 헝가리의 비교만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제 개혁 속도가 개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은, 경제 개혁 전략의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정치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혁 전략의 선택은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개혁 전략이 쇼핑몰에 진열되어 있어, 개혁 당국이 그 중 가장 성과가 좋을 것이라 여겨지는 전략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개혁 초기의 조건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정치적 제약이 곧 경제 개혁 전략을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개혁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체코와 헝가리를 급진적 경제 개혁과 점진적 경제 개혁을 추진한 국가의 모델로 상정하고, 두 국가를 비교함으로써 각 개혁 전략의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제약의 함의를 논의해보았다. 결론적으로, 개혁 전략에 따라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발견할 수 있으나 어느 전략이 더 우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한 전략이 더 우월하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결과는 충분히 다른 양상을 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에 의해 개혁 전략의 선택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정치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전략이 더 우월하다고 속단을 내리는 것보다, 그 국가의 조건을 면밀히 살핀 뒤 그 국가의 정치적 제약에 부합하는 한에서 최선의 이행 전략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동유럽·구소련 국가들 외에도 중국·베트남 등의 이행기 국가가 존재하며, 이행 과정에서 동유럽·구소련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초기 조건과 구조적 특징이 이행기 국가들의 개혁 성과를 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옳은 개혁 전략이란 각 국가의 초기 조건과 그로부터의 정치적 제약을 반영하는 것이고 쉽사리 국가 간에 이식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²⁵⁾

이행기 경제와 이행 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시켜 보자. 흔히들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민족적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이행기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 과정에서의 경제적 충격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건과 정치적 제약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경제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이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였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개혁 이전의 통계 자료가 불확실하거나 추정치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체코의 경우, 1993년을 기점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뉜 것이므로, 1993년 이전 자료의 경우 현재의 체코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자료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상의 문제는 정확성이 월등히 높은 새로운 통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어느 연구자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코와 헝가리의 개혁 속도와 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고, 정치적 제약의 함의를 이끌어 낸 데에 이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5) World Bank (1996), p. 21 참조.

<참고문헌>

- Åslund, A., Boone, P., Johnson, S., Fischer, S., Ickes, B. (1996), “How to Stabilize: Lessons from Post-Communist Countri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1996, No.1, pp.217-313.
- Berg, A. (1993), “Measurement and Mismeasurement of Economic Activity During Transition to The Market”, pp.39-63 in *Eastern Europe in Transition: From Recession to Growth?*, World Bank Discussion Paper 196.
- _____, Sachs, J. (1992), “Structural Adju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Economic Policy*, Vol. 7, No. 14, pp.117-173.
- Blanchard, O. (1996), “Theoretical Aspects of Trans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6, No.2.
- _____. (1997), *The Economics of Post-communist Tran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Dewatripont, M., Roland, G. (1992), “The Virtues of Gradualism and Legitimacy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Economic Journal*, vol.102, No.411, pp.291-300.
- _____. (1995), “The Design of Reform Packages under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 no.5.
- Falcetti, E., Raiser, M., Sanfey, P. (2002), “Defying the Odds: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30, pp.229-250.
- Fischer, S., Sahay, R., Vegh, C. A. (1996), “Stabilization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 Early Experienc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0, No.2, pp.45-66.
- Heybey, B., Murrell, P.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Speed of Liberalization During Transition” .
- Kim, B-Y., Pirtilla, J.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s: Empirical Evidence from Post-communist Transition in the 1990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34, No.3, pp.446-466.
- Krueger, G., Ciolko, M. (1998), “A Note on Initial Conditions and Liberalization during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6, pp.718-734.
- Mejstrik, M., Burger, J. (1994), “Privatization in Practice: Czechoslovakia’s Experience from 1998 to Mid-1992”, pp.135-157 in Rondinelli, D. A. (eds.), *Priva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Central Europe: The Changing Business Climate*, Quorum Books.

- de Melo, M., Denizer, C., Gelb, A. (1996), "From Plan to Market: Pattern of Transi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564.
- OECD (1996), *Transition at The Local Level: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and The Slovak Republic*,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achs, J., Woo, W. T. (1997), "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Performance",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5935.
- Schneider, F., Enste, D. H. (2000) "Shadow Economies: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8, No.1, pp.77-114.
- Slay, B. (1994), "Rapid versus Gradual Economic Transition" RFE/RL Research Report, Vol.3, No.31.
- Thomas, S.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Poland, Hungary, and Czechoslovakia", pp.279-295 in Clague, C., Rausser, G. (eds.),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ies in Eastern Europe*, Blackwell.
- World Bank (1995), *Unemployment, Restructuring, and The Labor Market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Commander, S., Coricelli, F. (eds.), World Bank.
- _____ (1996), *From Plan to Market: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영상자료]

- SBS 프로덕션, 「프라하의 봄 그후 25년 체코슬로바키아」, 1993.
- SBS 프로덕션, 「서구화의 선두주자 헝가리」, 1993.

[통계자료]

- EBRD, Economic statistics & forecasts
(<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index.htm>)
- ILO, LABORSTA Internet
(<http://laborsta.ilo.org>)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07/01/data/index.aspx>)
- OECD,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statsportal/0,2639,en_2825_293564_1_1_1_1_1,00.html)
- UN,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unsd/cdb/cdb_list_countries.asp)
- World Bank, Development Data & Statistics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DATASTATISTICS/0,,menuPK:232599~pagePK>)

:64133170~piPK:64133498~theSitePK:239419,00.html)

심사평

장 려 상

김 영 룡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이행 초기 정치·경제적 조건이 경제 개혁 속도에 미치는 영향
- 1989~1994년 체코와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유를 밝힌 것이 눈에 띄며 기술과 설명이 성실한 글이다. 특히 두 나라의 비교를 위해 매우 상세한 자료들을 섭렵하여 경제적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잘 비교하였다. 그러나 글의 완성도와 선행연구 정리 및 논리 전개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머리말에서 제기된 문제는 “경제개혁 속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점진적 개혁과 급진적 개혁 중 어느 것이 우월한 전략인가?” 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제 결론에서도 두 번째 문제에는 답을 줄 수 없다고 썼다. 반면 정치경제적 제약은 머리말에서 중요한 문제제기가 아닌 것처럼 제시된 것과 달리 본문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문제제기와 서술의 일관성을 기하고, 정치경제적 제약이 첫 번째 질문과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가지는지도 명확히 설정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과 실업률에 관한 설명도 다소 부족하다. 점진적 개혁이라면 급진적 개혁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실업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 이유와 의미를 비교적 관점에서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장의 기존문헌 연구는 이 리포트가 취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선행연구 고찰이 아니라 연구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자기 논문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문주와 각

주가 혼용되고 있는데, 출전표기를 통일하고 퇴고를 성실히 해야 할 것이다.

정병기(기초교육원 사회과학 글쓰기 강사)